

# 전주역세권, 국가 차원에서 재생한다

2000년대 이후 서부신시가지와 전북 혁신도시 개발로 공공기관이 빠져나 가며 활기를 잃은 전주역세권을 살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은 마을개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가 제안한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와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마을'을 각각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시가지형과 '우리 동네 살리기'형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을 통해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지난해 서학동예술마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 정부, 도시재생특위서 첫마중길·용머리 여의주마을 선정 첫마중권역 250억원·용머리 여의주마을에 75억원 투입

대표를 비롯한 지역정치권, 첫마중길 주민과 상인, 서완산동 주민 등과 힘을 모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해왔다.

먼저, 전주역과 첫마중길을 포함한 주변 20만1,300㎡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총 250억원이 투입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침체된 전주역 주변과 6지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한 상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성화사업과 함께, 도시 공간 혁신을 주도할 관광·음식문화 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첫마중길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집객 유발시설도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역세권 혁신거점 조성(복합환승장, 청년·사회적 기업 상품 체험 판매장, 청년셰프 푸드몰, 전주푸드/청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청년 창업 여건마련(창업이음센터, 사회주택, 청년문화놀이터 등) △생태 중심 도시 공간 재생(범죄예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침체된 전주역 주변과 6지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시는 첫마중길 권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전주역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조성한 전주 첫마중길, 현재 추진중인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주역세권 경제를 회복시키고, 도시경관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살리기'형 공모에 선정된 서완산동 여의주마을 4만9163㎡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국비 45억원 등 총 75억원이 투입돼 마을 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산비탈에 있었던 공동묘지를 철거하고 남문 밖 관자촌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여의주마을은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마을 전체 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도로개설 이외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시는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정비 △마을 내 공공용지에 주차장과 진입로 등 조성 △폐·공가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추진,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사업 완료 이후 주민주도의 마을관리회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 공동체 활동 등도 추진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의 천년 역사와 전통경관, 전주 시민들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도시재생 사례"라며 "이번 국비확보로 그동안 낙후 지역으로 있었던 전주역 주변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뿐만 아니라 전주역사 신축사업(450억), 전주역-첫마중길 재생사업(250억), 덕진연못 환경개선사업(250억) 등 950억원이 투자되면서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전주 동부권 일대가 재탄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장은 "첫마중길 조성 과 전주역 신축에 이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축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을 통해 황량한 유휴지구가 아닌 청년과 문화, 사회경제가 살아 숨쉬는 즐거운 삶터와 활력 있는 일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단편영화제 공식경쟁 출품작 공모

### 시네숲, 장르 불문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문화기획단 시네숲은 오는 12월에 열리는 제1회 전주단편영화제 공식경쟁부문 출품작을 공모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3일부터 10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전주단편영화제는 문화기획단 시네숲이 주관, 주최하고 전주시, 전주영상위원회, 전주시미디어센터 영사시,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들만 공모 받는다.

출품작은 2017년 1월 제작된 작품으로 장르와 상영시간 제한 없이 전북 거주자, 대학생, 직장인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공모는 공식홈페이지(cinesup.kr)에서 온라인제출만 가능하다.

예선 심사 결과는 11월 중순 시네숲 공식홈페이지와 페이스북(facebook.com/JSFF1004)에 공개되며 공식경쟁부문 작품은 10개 내외가 선정 될 예정이며 문화기획단 시네숲대상 '꽃심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황금부채상', 비평상, 전주전상, 관객심사상을 '콩나물상' 등이 선정되며 모두 상장과 상품이 수여된다. /송효철 기자



### 폭우로 잠긴 차도

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기린대로가 밤사이 내린 폭우로 도로가 잠겨 있어 출근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9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전북경찰, 한달간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10월 도내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고 총기로 부터의 사회적 평온함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9월 한달간)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받으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고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

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우편번호 54962) 전북 전주시 유엔로 180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사전 신고 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로 인한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다. /송효철 기자

## 보험범죄 근절... 전북경찰, 유관기관과 수사협의회

### 공동 대응방안 협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지난달 31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보험범죄를 척결을 위한 수사협의회를 열었다.

전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북경찰청(수사과장 박현수),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손해보험팀장 정관성), 전라북도청(보건의료과장 양해중, 금융의료팀장),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보험급여부 이인환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역(운영부 장종문 차장),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안전조사운영부 김진영 차장), 생명보험협회(채한기 센터장), 손해보

험협회(김양식 호남본부장) 등 8개 기관의 대표 및 실무자가 참석, 전북지역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현수 수사과장은 "각 유관기관의 기능별 전문가들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수사력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보험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자"고 행사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지역 내 불법 운영되는 병·의원, 의료기기점, 우수의뢰, 자료제공 등 경찰 수사에 많은 힘을 실어 줄 것을 각 유관 기관에 부탁했다.

각 기관의 대표 및 실무자는 "보험범죄

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추가부담이라는 피해를 입히는 민생경제 침해 범죄인만큼 각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보험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보 교류, 현장 수사 인력 및 자료 분석 지원, 제도개선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과 유관기관 간 수사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보험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통방 운영, 각 기관 보험범죄 대응 우수 시책 및 우수사례 공유, 기관별 협조사항 및 요청사항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협조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효철 기자

## 형사미성년자 기준 '13세 미만'으로

### 교육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발표

정부가 연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보완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지만, 청소년 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다,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률은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1.3%(5만 명)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중대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 강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기관간 협력개발기구(OECD)국가 1.5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해 범죄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 1인당 41명 증원  
가해학생 대상 경미한 조치  
학생부 기재 안하는 방안도

축 등 6대 영역 25개 과제를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세 사이 '축법소년'이 올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1~6월)보다 7.9%(249명) 증가했다.

정부는 또 소년법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비롯해 교육부(We클래스·센터·스쿨), 경찰청(청소년경찰학교), 여가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모든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해자용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연내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1.5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해 범죄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민간 자원봉사자인 명예보호관찰관도 기존 835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기존 1곳(해맑음 센터)에서 4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가해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2곳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1곳 등 총 3곳을 신설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집단폭력이 아닌 경우 ▲성폭력이 아닌 경우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교육부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 배드민턴 대회 성료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주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2018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2일 전주시 50개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 회원 1,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덕진전용 배드민턴구장에서 열렸다.

지난달 31일 전주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30대~70대까지 연령대와 기량에 따라 A·B·C·D급으로 분리와 경기를 치르며 각 부문별 우승자는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를 통해 가려진다고 밝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배드민턴이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대중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 등 생활 속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배드민턴은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여 각 초등학교 강당 등에 동호회클럽들이 활성화 되어있어 누구나 가입만 하면 사시사철 운동이 가능하다. /송효철 기자

### 완산구, 내일부터 체납차량

#### 번호판영치 집중단속 나서

전주시 완산구는 2018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추진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구·동 합동으로 전직원이 나서는 특별영치반을 가동, 주, 야간에 걸쳐 주택가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완산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총 1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표차량은 강제영치하고 공매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광표 완산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38억으로 구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강도 높은 징수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니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